

多國籍資本과 國家 — 글로벌리제이션의 意義

李 龍 雨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자본주의의 새로운 질서는 자본활동의 전제조건, 즉 자본의 전세계적 이윤추구가 확립됨에 따라 자본의 본성 중 하나인 세계성을 개화시켜 다국적 자본의 형성으로 이끌었고, 이러한 자본의 세계적 활동은 다국적자본을 형성시켰다. 그러나 다국적자본의 경쟁은,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경제의 황금번영기를 가져온 포드주의의 내적인 모순을 발현시켰고,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론이 쇠퇴하고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자본활동의 자율성을 주장하는 신보수주의의 대두를 가져왔다. 본고는 이러한 다국적자본의 형성·경쟁의 심화와 자본주의 국가의 성격 변화를 ‘포드주의에 ME技術을 結合한 生産方式을 갖고, 國境을 뛰어 넘어 全世界를 對象으로 價値增殖運動을 하는 資本의 한 形態’로 定義되는 다국적자본 개념을 통해 파악함으로써 최근의 글로벌리제이션에 따른 자본주의 국가의 성격변화를 파악함으로써 자본운동과 국가의 신보수주의화와의 관계를 명확히 한 것이다.

1. 序 論

1980년대는 다국적기업간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전개되어 세계경제의 새로운 구조변동이 나타난 시기이다. 1974~75년 공황을 거치면서 전개되었던 재구조화(Restructuring)의 결과 자본간 경쟁이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되었다. 다국적기업간 경쟁은 극소 전자(ME: Micro-Electronic)혁명의 결과를 생산에 활용하여 축적구조를 재편한 자본들간에 세계적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다국적기업간 경쟁은 1945년 이후 세계자본주의의 전통적인 생산방식으로 자리잡았던 포드주의적 생산방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계기 중의 하나이다. 포드주의적 생산방식은 작게는 생산현장에서의 작업방식을 의미하지만 넓게는 그것이 가져오는 사회적 생산관계 및 자본과 국가의 관계까지 포괄하는 의미도 갖고 있다.⁽¹⁾ 그러므로 포드주의적 축

(1) Gramsci(1926)는 생산현장내의 작업방식 변화가 사회적 생산관계, 나아가 국가의 성격 변화를 조래하며 생산방식의 확산은 생산관계의 확산을 가져온다는 것을 포드주의의 유럽지역에의 확산과 관련하여 지적하였다. 이러한 Gramsci(1926)의 지적은 맑스가 『정치경제학비판』과 『자본론』에서 자본주의의 세계적 확산, 즉 문명화 작용을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Gramsci(1926)의 문제설정은 정치경제학에서 잊혀지고 있다가 1970년대 Braverman(1974)의 독점자본주의의 노동과정에 대한 연구로부터 시작하여 노동정치(labor politics) 논쟁을 통해 새로이 등장하였다. BLP(1976), Palloix(1976), Friedman(1977), Thompson(1983), Buroway(1979) 등을 참조하라. 노동정치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그 의의를 부각시킨 것은 Buroway

적체제의 변화는 단순히 작업장에서의 생산방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생산관계의 변화 및 이에 따른 자본과 국가의 변화까지 포함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특히 다국적기업의 활동은 국민국가의 틀(=국경)을 뛰어넘어 전개되기 때문에 기존의 국가가 가지고 있던 성격을 일정하게 변화시킨다. 이러한 다국적기업의 성장에 의한 국가의 성격 변화는 일찍부터 주목되어 논쟁의 대상으로 주목되었다.⁽²⁾ 그러나 이들 연구는 다국적기업의 성격을 분석하지 못한 결과⁽³⁾ 다국적기업과 국가를 대립적인 관계로 파악하였고, 다국적기업의 성장이 국가의 ‘힘’을 강화시킨 것인가 아니면 약화시킨 것인가라는 잘못된 問題設定에서 論爭이 전개되었다. 또한 자본주의사회에서 국가의 본질 및 성격의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이 논쟁의 한계였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국가론 논쟁⁽⁴⁾은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의 길을 열었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1980년대 들어 미국의 다국적기업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들의 다국적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었고, 유럽 주요 기업들의 다국적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다국적기업간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고 이를 배경으로 다국적기업과 국가에 관한 새로운 논쟁이 전개되었다.⁽⁵⁾

그러나 이러한 논쟁들도 자본주의 국가의 본질과 다국적기업의 발전에 의한 자본주의 국가의 성격 변화를 혼동함으로써 1980년대 이후 나타나는 세계자본주의의 구조변화의 내용과 의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1979)이다. 한편 조절이론(Regulation Theory)은 이러한 노동정치론과는 다른 맥락에서 이와 유사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2) 다국적기업이 본격적으로 대두하던 시점인 1970년대 초반의 다국적기업의 성장이 국민국가를 쇠퇴시키는지 아니면 강화시키는지에 대한 논쟁이 전개되었던 것은 국가의 성격 변화에 주목한 것이었다. Hymer(1979), Mandel(1967, 1975), Michalet(1976), Murray(1971), Radice(ed.) (1975), Rowthorn(1971) 등을 참조하라. 한편 Cypher(1972)는 다국적기업의 성장에 따른 사회구성(social formation)의 변화에 주목하였다.

(3) 이 논쟁이 진행된 시기는 미국 다국적기업이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던 시기였지만 다국적기업간 경쟁은 미국에 기반을 둔 것이었고 여러 나라들의 다국적기업이 세계를 대상으로 경쟁을 전개하지 못하였다는 시대적인 한계가 있었다.

(4) 1970년대 전개되기 시작한 국가론 논쟁은 현실적으로 독일에서의 사회민주당의 집권,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의 공산당·사회당의 집권 가능성을 배경으로 한다. 이러한 국가론 논쟁을 통해 정치경제학적 자본주의 국가인식의 폭은 확대되었다. 이 논쟁에서 서구의 맑스주의는 소련의 정통파 맑스주의의 권위에 대해 도전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고전적 맑스·레닌주의의 재발견이 이루어진다. 국가론 논쟁은 이른바 밀리반트·플란차스 논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였지만 프랑스에서는 국가독점자본주의론 논쟁, 독일에서는 국가도출론 논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논쟁의 배경에 대해서는 이용우(1991)를 참조하라.

(5) 새로운 논쟁은 자본의 본성인 세계성에 주목하는 자본국제화론의 문제제기에 대한 옹호와 반론으로 전개되었다. Bina and Yaghmaian(1991), Bonefield and Holloway (eds.)(1991), Glyn and Sutcliffe(1992), Jenkins(1987, 1989a, 1989b), McIntyre(1991), Pitelis(1991), Holloway (1994), de Brunhoff(1978) 등은 자본국제화론의 논리에서 다국적자본을 파악하는 입장과 이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것들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다국적기업간의 경쟁을 국가 개념을 내적으로 포함하는 다국적자본 개념으로 정의하고 다국적자본의 경쟁이 가져오는 세계자본주의의 구조변화, 특히 글로벌리제이션(Globalization)이 갖는 함의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 글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다국적자본의 일방적 지배구조를 깨뜨리면서 대두한 일본 자본의 다국적기업화에 주목하여 분석을 전개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이 글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자본주의 발전과정을 포드주의의 세계적 확산과정으로 파악하고 1970년대가 포드주의의 위기라고 파악할 것이다. 다음으로 포드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국적기업화가 전개되고, 이 시기를 주도하는 자본으로서 다국적자본이라는 개념을 정의할 것이다. 그리고 다국적자본과 국가의 관계를 정리한 후 다국적자본의 운동에 따라 나타나는 자본주의 국가의 변화를 파악하여 글로벌리제이션이 갖는 함의를 간략히 서술할 것이다.

2. 1970年代 以後 多國籍企業의 生産方式 變化

2.1. 포드主義的 生産方式의 特質과 矛盾 — 多國籍化의 動因

1980년대 다국적기업의 경쟁에 의한 세계자본주의의 구조변화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포드주의적 축적체제의 위기 및 사회관계의 변화 요인을 우선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포드주의의 경제적 특징은 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을 생산성 상승으로 상쇄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과 시장확대를 추구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포드주의는 제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전후 재건이 미국의 주도하에 추진됨에 따라 전세제로 확산되었다.⁽⁶⁾ 대량생산·대량소비로 특징지어지는 포드주의는, 테일러주의에 의한 動作分割과 콘베이어벨트를 이용한 自動化의 結合을 통해 標準化된 제품을 대량생산하는 생산방식이다. 대량생산체제의 확립은 勞動生産性을 급격히 향상시켰다. 노동생산성의 향상은 노동자에게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불할 수 있게 하였고, 이 高賃金은 다시 購買力으로 이어져 대량생산된 제품을 大量消費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후 好循環⁽⁷⁾에 의한 高度成長의 계기를 마련한

(6) 포드주의의 형성은 192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식 포드주의의 높은 생산성은 미국을 제 2차 세계대전의 戰勝國으로 이끌었다. 미국 주도의 세계자본주의체제의 구축은 미국식 포드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7) 1970년대 후반부터 등장한 調節理論學派(Regulationist)는 이러한 포드주의의 호순환과 그 위기 및 재편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Aglietta(1979), Boyer(1986), Coriat(1991) 등을 참조하라.

것이였다. 요컨대 전후 호순환은, 노동생산성 상승물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相對的인 고임금을 지속적으로 지불함으로써 노동자를 體制內化시키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는 체제⁽⁸⁾라고 할 수 있다. 대량생산체제의 호순환이 계속되기 위한 조건은 勞動生産性上昇率이 實質賃金上昇率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대량생산체제는 노동생산성 상승률이 저하하게 되면 위기에 처하게 된다. 노동생산성 상승률의 저하는 지속적인 자본축적에 장애가 되고, 더 나아가 실질임금 상승의 기초를 깨뜨려 노동조합 요구의 흡수를 통한 사회적 통합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노동생산성의 정체와 실질임금의 정체는 대량생산된 상품의 實現을 위한 市場擴大에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미국식 포드주의의 위기는 1960년대 초반부터 可視化되기 시작하였고, 石油波動을 직접적 계기로 하여 1974~75년恐慌으로 이어졌다. 이 공황은 포드주의의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

1960년대 초반 포드주의의 위기는 노동생산성의 향상이 저하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이것은 유럽 및 일본 등이 미국식 포드주의를 受容・變形시켜 戰前의 생산수준을 회복하고 미국 자본과 경쟁을 하게 됨에 따라 더욱 증폭되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여 미국 자본은 多國籍化를 추구하였다.⁽⁹⁾ 미국 자본은 勞動生産性의 停滯와 實質賃金의 上昇에 대처하는 방식 중 하나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양질의 노동력이 있는 지역으로 자본의 국제화를 추구하였다. 미국 자본의 다국적화는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2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하나는 市場擴大을 위한 先進國으로의 직접투자였고, 다른 하나는 低廉하고 良質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新興工業國으로의 직접투자였다.

2.2. 極小電子(ME)革命에 의한 포드主義의 變形

포드주의의 위기로 인해 자본의 다국적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됨과 동시에 생산방식 내적으로도 포드주의의 일정한 변용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포드주의의 표준화된 대량

조절이론은 변화하는 현실에 주목하여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類型論에 빠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것은 조절이론이 자본주의 일반이론의 존재를 부정하고 中位水準의 개념만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는 중위 수준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 개념이 자본주의 일반과 어떠한 관련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지 못하면 그 개념은 단순한 유형을 묘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조절이론의 연구성과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것이 자본주의 일반이론과 어떠한 관련을 갖고 있는가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절이론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

- (8) 지속적인 고임금이 불가피한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勞動組合의 존재이다. 포드주의는 熟練을 解體하여 同質화된 노동을 창출함으로써 노동조합 결성의 기초를 확대하였다. 포드주의는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노동자 계급의 요구를 인정 정도 수용함으로써 社會的 統合을 달성할 수 있었다.
- (9) 자본의 다국적화는 1960년대 초반 자본의 국제적 활동을 위한 전제들이 완성되었다는 이유도 있지만, 더욱 근본적인 원인은 포드주의의 위기였다.

생산의 한계를 넘기 위한 것이었다. 포드주의는 대량생산을 통해 單位費用의 節減을 추구하는, 즉 規模의 經濟를 추구하는 생산방식이다. 규모의 경제가 갖는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그 生産量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한다. 예컨대, 자동차산업의 경우 모델별로 연산 30만대 이상의 자동차가 생산되어야만 규모의 경제가 갖는 이익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알려진다.⁽¹⁰⁾ 이것은 어떠한 산업에 자본이 새로이 進入해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多量의 資本投下, 즉 設備投資가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伸縮의인 生産規模 變更이 물리적으로 어려워 최종수요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포드주의적 생산방식은 최종수요가 줄어들 경우 나타나는 遊休設備의 문제와 최종수요가 급속하게 늘 경우 추가적으로 거액의 설비투자가 요구되는 한계를 갖는 것이다. 가령 포드주의적 생산방식을 채용하고 있는 연산 30만대 규모의 A모형을 생산하는 자동차공장에서 최종수요가 20만대에 불과할 경우 10만대의 과잉설비가 비용부담으로 작용하고, 새로운 B모형의 수요가 10만대로 새로이 형성되고 있을 경우에도 이미 A모형의 10만대의 과잉설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라인 건설을 위한 다량의 설비투자가 필요하게 되는 문제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포드주의적 생산방식이 갖고 있는 한계는 경기가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시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경기가 하강세로 접어드는 시점에는 가장 핵심적인 위기 요인으로 부상한다. 1960년대부터 경기 둔화세가 나타나기 시작함에 따라 자본들에게 이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극복하느냐는 사활이 걸린 것이 되었다.⁽¹¹⁾ 이 때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 컴퓨터를 활용하는 극소전자(ME: Micro-Electronics)혁명이었다. ME혁명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롭게 발전한 전자·컴퓨터부문의 科學技術을 생산에 적용하면서 나타난 것이었다.

ME혁명은 機械에 대한 統制를 機械로부터 相對的으로 自立된 制御機械에 의해 수행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ME혁명은 기계적 기구 자체를 변경하지 않고, 일정한 범위내에서 그 기능 및 운동을 인간의 직접적 개입없이 자동적으로 변경시킴으로써 이른바 ‘柔軟自動化’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는 종래 작업의 經驗的 熟練을 科學的·工學的 知識에 의해 客觀化하는 과정인 프로그래밍을 통해 기술자의 기술학적 지식과 작업자에게 체득된 경험적 숙련을 결합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ME혁명은 종래의 기술자와 작업자간의 분

(10) 물론 이것은 特定時期的 生産技術의 성격과 投資資本의 效率性, 産業의 特性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11) 아울러 1970년대 이후 나타나는 需要의 多樣化는 포드주의가 잉대하고 있는 過剩設備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노출시켰다.

업을 폐기하는 기술적 기초를 만들어 생산력의 비약적 발전을 가져왔다. 이러한 ME革命은 표준화된 제품의 대량생산을 多品種生産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자본의 費用節減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는 ME혁명이 기계기구 자체를 변경하지 않고 기계에 의한 통제 및 제어체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대량생산방식에서와 같은 전용설비가 아닌 범용설비를 채용할 수 있었다는 것에 연유한다.

危機에 처한 자본은 ME혁명의 성과를 생산에 도입함으로써 대량생산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였다. 工場自動化(FA), 컴퓨터統合生産(CIM) 등을 통해 柔軟生産體制(FMS)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생산방식의 도입은 연구개발·설계 및 마케팅 기능 등을 온라인화하고, 기업 전체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최근의 축적전략 변화는 이 시기부터 현 재화된 것이었다.

2.3. 포드主義의 外延的 擴大와 資本의 世界的 次元의 競爭

포드주의의 위기에 직면하여 미국의 자본들은 본격적인 다국적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ME혁명의 성과를 생산에 활용하여 포드주의의 변용을 시도하였다는 것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다. 그러나 미국 자본이 본격적인 다국적화를 시도한 1960년대는 제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일본과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이 전후 재건을 완료한 시점이었다. 이것은 세계경제에서 미국, 유럽, 일본자본들간에 새로운 경쟁이 이루어질 조건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쟁의 관건이 된 것은 포드주의의 한계를 각 자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극복하느냐이다.⁽¹²⁾ 결국 이것은 각국이 ME혁명을 어떻게 활용하여 포드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것인가에 귀결되는 것이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 자본은 多國籍化를 추구하였다. 자본의 다국적화는 1960년대 초반 자본의 국제적 활동을 위한 전제들이 완성되었다는 이유도 있지만, 더욱 근본적인 원인은 포드주의의 위기였다. 미국 자본은 勞動生産性的 停滯와 實質賃金의 上昇에 대처하는 방식 중 하나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양질의 노동력이 있는 지역으로 자본의 국제화를 추구하였다. 또한 노동생산성의 정체와 실질임금의 정체는 대량생산된 상품의 實現을 위한 市場擴大에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미국 자본의 다국적화는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2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즉, 시장확대를 위해 선진국으로 직접투자하고,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으로 직접투자를 확대한 것이다. 이는 工程分割에 의한 世界的 分業을 확대·추구하는 다국적기업화를 통해 포드주의적 축적의 한

(12) 유럽과 일본도 제 2차 대전 이후 당시 선진국이었던 미국의 포드주의를 받아들여 기본적인 생산방식으로 삼았다.

계를 극복하는 전략으로 채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ME혁명의 성과를 생산에 활용하는 것도 이러한 전략의 일환이었다. 포드주의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의 하나인 자동화를 통한 省力化를 거대한 규모로 달성하기 위해 ME혁명의 성과를 이용한 것이었다. 미국 자본은 엄밀한 공정연구에 따라 세밀하게 공정을 분할하고, 노동집약적 공정을 외국으로 이전시킴과 동시에 국내에서는 자동화를 추진하여, 이들을 재결합함으로써 세계적 차원에서 有機的 分業關聯을 갖도록 産業的 再編成을 시도하였다. 미국 자본의 다국적화는 이러한 전략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한편, 미국이 포드주의의 위기에 대응하여 다국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1960년대는 유럽, 일본 등이 제 2차 세계대전의 피해를 극복하고 세계경제무대에 전면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였다. 따라서 미국 자본은 일본 및 유럽의 자본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자본들간에 세계시장을 놓고 새로운 경쟁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이것은 미국식 포드주의의 재편을 시도하는 미국 자본과 세계경제무대에 새로이 등장한 일본 및 유럽 자본들의 경쟁이 전개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들 국가도 나름대로 적용시킨 포드주의에 덧붙여 포드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ME혁명의 성과를 생산방식의 개편에 활용한 것은 미국과 동일하였다. 결국 세계경제에서 미국, 일본, 유럽 자본의 경쟁은 누가 효과적으로 ME혁명을 활용하여 포드주의 한계를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포드주의적 생산방식에 ME혁명의 성과를 결합시키는 데에는 일본 자본이 앞서 나갔다. 이것은 포드주의가 일본에 이식되면서 일본적 특수성에 의해 변형되었고, 이것이 ME혁명과 친화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일본식 포드주의가 왜 미국의 그것보다 ME혁명을 잘 활용하였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2.4. 日本式 포드主義와 ME革命의 親和性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에 걸쳐 생산방식에 주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된 것은 電子産業을 중심으로 한 ME혁명이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첨단산업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일본의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일본의 성장은 科學技術革命의 성과를 재빨리 産業技術化하여 再構造化에 성공한 결과였다. 일본 자본이 미국의 다국적자본보다도 포드주의의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고 결과적으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의 특수한 生産構造가 ME革命과 親和力이 높았기 때문이다.⁽¹³⁾

(13) 이러한 ME혁명에 따른 생산방식의 변화에 대해서는 Kenney and Florida(1993), Womack, et. al. (1990)를 참조.

資本間 競争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ME혁명의 성과를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하느냐는 資本의 競争構造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등장하는 것이다. 일본의 생산방식이 ME혁명과 친화력이 높았다는 것은, 일본 자본이 전후 세계자본주의를 주도하고 있었던 미국 자본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1980년대 세계자본주의의 구조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미일자본의 경쟁에서 미국 자본의 우위 상실은 保護主義와 市場開放을 둘러싼 通商摩擦을 가져왔고, 미일자본의 경쟁구조를 변화시켜 결과적으로 전후 세계자본주의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경쟁의 핵심은 ME혁명의 성과를 생산에 활용하여 규모의 경제를 향유할 수 있는 最小生産要求量을 줄일 수 있음과 동시에, 변화하는 수요에 신속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가능케 하여 포드주의의 과잉설비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생산규모를 유지하는 것에 있었다.

일본의 자본이 세계적 규모의 자본간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에 이식된 포드주의의 특질에 연유하는 것이다. 일본은 시장이 협소하여 대량생산은 재고부담의 위험이 매우 컸다. 이 결과 전후 일본 기업이 직면한 과제는 협소한 시장수요에 맞추어 생산하면서 동시에 대량생산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분절화된 시장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동시에 공급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제에 직면하여 기업들은 다양한 실험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도요타 생산방식이 나타난 것이었다.

도요타 생산방식은 포드주의를 도요타자동차가 일본에 적합하도록 변형한 것이었지만 포드주의 자체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이 생산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생산의 흐름이 포드주의와는 반대로 後工程에서 先工程으로 전개된다는 것이다. 注文生産처럼 완성제품의 생산량이 수요에 따라 결정된 후, 이에 맞는 부품수와 종류가 결정되고, 이 정보가 공정을 타고 올라가는 형식을 갖는 것이다.⁽¹⁴⁾ 물론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제품의 생산은 포드주의와 동일한 콘베이어벨트 작업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생산방식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은 在庫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포드주의에서 재고는 필연적인 것으로 간주되지만, 이 생산방식은 불필요한 재고를 극소화함으로써 낭비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하자없는 각종 部品の 適期供給이 요구된다. 일본식 포드주의의 특징을 適期生産體制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품의 적기공급은 완성업체와 부품업체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미국식 경쟁적 부품공급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부품업체가 완성업체와 한번 下請關係를 맺으면 정식계약 없이 보통 4~5년씩 부품을 공급한다. 부품공급업체는 완성업체의 요구에 따라 아주 적은 양일지라도 수시로 공급하는 체제를 갖는 것

(14) 포드주의는 이와 반대로 이미 세워진 작업계획에 의거하여 先工程에서 後工程으로 콘베이어 벨트를 따라 勞動對像이 이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다.

하자없는 부품의 적기공급을 통한 在庫의 極小化는 제품의 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절대적인 必要條件으로 한다. 이것이 제품의 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활동인 品質管理(QC) 활동이 생산 전반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연유이다. 엄격한 품질관리는 생산라인 전반을 숙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제품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즉각 개선함으로써 이루어진다.

適期生産은 일반적으로 混流生産, 平準化 生産, 小로트 生産의 특성을 갖는다. 혼류생산은 하나의 라인에 두 가지 이상의 제품을 흐르게 함으로써 포드주의적 대량생산이 갖는 유희 설비투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평준화 생산⁽¹⁵⁾과 소로트 생산⁽¹⁶⁾은 노동자간 숙련의 차 및 주기적인 생산량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이 이에 적응하는 熟練이 요구된다. 이러한 숙련의 형성은 노동자의 이동이 적어야 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長期雇傭慣行에 의해 뒷받침된 것이다. 즉, 장기고용을 전제로 한 승진과 임금제도가 기업내 숙련을 높이고, 그 숙련이 기업에 축적되게 한 것이다.

일본식 포드주의는 미국식 포드주의의 원리를 더욱 철저하게 적용시켜 흐름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낭비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 적응과정에서 포드주의와 다른 요소들이 형성되었다. 그것은 일본식 포드주의가 출현한 일본의 배경을 보면 잘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은 1950년대 격렬한 노사분규를 경험하면서 노동조합의 세력이 점차 약화되는 과정을 겪는다. 노동조합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職務에 대한 資本家の 介入에 대해 노동조합이 반발하지 않았다. 자본은 경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팀 작업을 기본적인 생산방식으로 채택하였다. 그 팀내에서 管理의 영역까지도 담당하도록 만든 것이다. 팀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교대되고 팀내의 성원도 교대된다.⁽¹⁷⁾ 이것은 팀내의

(15) 평준화 생산은 주문단위의 불균형을 제거하기 위해 항상 일정한 양의 제품이 생산라인에 흐르도록 유지하는 생산기법을 말한다. 이는 맨 뒤의 최종조립공정인 완성차조립라인의 생산의 '산'을 되도록 허물어 낮게하고 동시에 끝짜기는 얇게 하여 흐름의 표면을 고요하게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최종조립라인에서 동일한 차종이 한꺼번에 닳이 흐르기보다는 한 대 한 대 다른 차종이 적게 흐르게 하는 혼류생산과 결합하여 전개되었다. 많이 팔리는 차종과 팔리지 않는 차종, 예를 들어 세단 2대에 쿠베 1대씩 생산하여 생산라인의 제품흐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16) 로트(lot)반 한 제본의 1회 생산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소로트 생산은 1회의 생산량을 적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needs)에 맞는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17) 이 경우 직무는 세분화될 필요가 없다. 기본적인 직무를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것은 수시로 그 직무에 통합시키면 되는 것이다. 일본식 생산방식에서 직무의 수가 적고, 노동자간의 직무전환이 위어나는 것은 이러한 생산방식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다.

성원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¹⁸⁾ 일본식 생산방식⁽¹⁹⁾에서 多能工이 출현하고 라인의 문제점을 改善하는 활동이 활발한 것은 바로 이러한 것에 연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식 생산방식의 특징을 現場主義[安保哲夫編(1994, pp. 4~6)]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것은 현장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포드주의에서처럼 이것을 담당하는 과학자나 관리자에게 이의 해결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팀내·팀간의 협조를 바탕으로 즉각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특징을 평가한 것이다. 현장주의는 나아가 표준적인 작업을 산정하는 것도 현장의 노동자가 담당하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미국식 포드주의에서는 標準作業의 算定은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산업공학자의 몫인 것에 반해, 일본식 포드주의의 경우 현장에서 작업하는 노동자인 팀장의 몫이 되는 것이다. 팀장은 현장의 정보를 바탕으로 수시로 표준노동시간을 측정하여 노동자간의 작업불균형을 줄이는 것이다.⁽²⁰⁾ 이것은 포드주의에서 노동자의 반발로 정보의 흐름(現場→管理者→現場)이 단절되는 것과 대비되는 것이다. 이것은 포드주의의 특징인 構想과 實行의 分離에 대비되는 것이다. 구상과 실행이 결합되고 포드주의에서 문제로 되는 노동자의 소외가 어느 정도는 극복되는 것이다.⁽²¹⁾ 그러나 다른 한편 이것은 勞動者에 의한 勞動者의 統制를 이룩하는 것⁽²²⁾이며, 자본에 대한 노동자의 包攝이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식 포드주의는 情報의 흐름과 物品의 흐름이 同時竝立的으로 일어나고 需要의 變化에 彈力的으로 生産을 調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요컨대 生産의 柔軟性을 확보하는 방식을 포드주의적 대량생산방식과 결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식 포드주의는 우리가 앞에서 거론한 ME혁명의 성과를 곧바로 적용하기에 적합한 생산구조였다.

3. 多國籍資本과 競爭

3.1. 多國籍資本의 定義

1974~75년의 공황을 거치면서 세계시장을 놓고 자본들간의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었으며,

(18) 이를 이끌어 내기 위한 誘引體系가 基本給에 業績을 連動시키는 成果給制度였다.

(19) 우리는 이 글에서 일본식 생산방식을 일본식 포드주의가 ME혁명과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 즉 1974~75년의 공황을 거친 후의 생산방식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20) 여기서 일본식 포드주의가 표준작업의 산정에서 포드주의의 극단까지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준작업은 정확히 산정하여 작업간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서는 생산과정의 작업내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노동자의 협조가 필수불가결하다. 포드주의에서는 이것이 노동자의 반발과 미협조에 의해 장애에 부딪힐 반면, 일본식 생산방식은 이것을 노동자의 협조를 기조로 하여 철저히 적용한 것이다.

(21) 다른 한편 적기공급체계를 가능하게 하는 하청제도도 일본의 경우 사회의 저변에 광범하게 존재하고 있던 소생산자층 현대적 자본이 흡수하면서 형성된 것이다.

(22) 이것의 다른 이름이 參加型 經營[安保哲夫編(1994, pp. 4~6)]이다.

그 경쟁의 핵심은 포드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항상적 재고의 위험성을 줄여 생산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각국 자본들이 채택한 것이 ME혁명을 활용하여 생산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각국 자본들은 생산방식의 개선을 기초로 전세계시장에서 다시 한 번 치열한 경쟁을 전개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이와 같이 전세계시장을 대상으로 경쟁하는 기업들을 多國籍資本(TNC: Transnational Capital)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즉, 多國籍資本은 世界的으로 統合生産을 전개하는 多國籍企業(Transnational Corporations)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다국적 자본 개념은 독점자본의 성립 이후 전개된 자본의 세계적 활동이, 생산방식의 변화에 따라 생산의 영역까지 확대되어 전면적으로 전개된다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다국적기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定義가 사용되고 있다. 다국적기업이란 문자 그대로 ‘多國籍’인 활동을 하는 ‘企業’을 의미한다. ‘다국적’이란 기업의 활동이 여러 국가에서 이루어진다는 의미이고, ‘활동’은 해외지점(foreign branch)이나 자회사(foreign affiliate)의 자산·판매·생산·고용 및 이윤에 관련된 행위를 의미한다.⁽²³⁾ 따라서 다국적기업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정의는 “2개국 이상에서 소득을 창출하는 자산—공장·광산·판매사무소 등—을 소유·통제하는 기업”[UNCTC(1973, p. 5)]이다. 이 정의는 금융부문, 서비스부문까지 포함하고 국영기업, 소규모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사실 이 개념은 너무 광범위한 개념이기에 논란이 분분하다. 예를 들어 기업의 활동을 생산행위로만 제한한다면지, 해외관계회사의 수의 최소한의 규정이라든지, 해외부문의 비중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으로 총자산 또는 총매출액의 25% 이상을 차지해야 된다는 등의 좁은 의미로 개념규정을 해야 한다는 논의도 많이 있다. 이러한 논란은 다국적기업의 개념에 사용되는 여러 기준, 즉 多國籍性·所有權·組織形態·統制力·活動產業分野·規模 등이 불충분하다는 것에 기인한다. 이것은 또한 다국적기업이 현대 세계경제에서 갖는 의의를 파악하는 데 제한을 준다. 그 의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다국적기업의 본질을 자본축적 및 資本主義生産樣式과 관련하여 파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다국적기업을 다국적자본이라는 자본형태로 규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국적자본은 포드주의에 ME技術을 結合한 生産方式을 갖고, 國境을 뛰어 넘어 全世界를 對象으로 價値增殖運動을 하는 資本의 한 形態’라고 定義한다. 이 정의가 내포하

(23) 海外支店은 해외에서 운영되는 母企業의 일부분을 의미하고, 子會社는 해외지점과는 달리 독립된 법인형태나 모회사에 의해 초과적으로 통제되는 기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회사는 subsidiary와 associate로 구별되는데, 前者는 모회사가 議決株式 過半數 또는 (간혹) 25%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이고, 後者는 1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UNCTC(1973, p. 5)를 참조하라.

고 있는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다국적자본의 물질적 기초인 생산방식이 포드주의와 ME관련 기술이 결합된 것⁽²⁴⁾이라고 파악하는 것은 다국적자본이 독점자본의 기초 위에 성립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포드주의는 테일러주의와 자동화의 결합으로 형성된 것이었고, 이러한 생산방식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투하 자본량이 거대해야 한다.⁽²⁵⁾ 포드주의는 規模의 經濟性을 최대로 향유하여 대량생산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집적·집중에 의한 자본규모의 확대가 요구된다. 자본규모가 확대될 수 있는 배경으로는 株式會社制度·資本信用 등 信用機構의 정비를 바탕으로 활동하지 않는 유희화폐자본을 사회적으로 흡인하여 배분하는 기구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기구로의 접근 가능성은 독점자본의 생산력 향상, 즉 경쟁에서 사활을 결정하는 조건이 되었다.

다국적자본에 의한 자본의 국제적인 이윤증식 활동이 갖는 의의를 강조하는 資本國際化論이 독점자본을 부인하는 것은, 다량의 자본 투하와 자동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가 갖는 의의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 논리는 자본간 경쟁의 형태에만 주목하는 것으로서 경쟁의 기초가 되는 생산방식을 무시한 결과이다.⁽²⁶⁾ 그러므로 다국적자본을 생산방식에 주목하여 독점자본의 기초위에 성립하였다고 정의하는 것은, 세계자본주의에서 다국적자본화를 生産資本의 國際化로 規定⁽²⁷⁾하고, 이를 자본의 일반적 속성이라고 주장하는 자본국제화론의 誤謬를 訂正하는 의의를 갖는다.

(24) 이 경우 포드주의와 ME혁명이 결합되지 않은 다른 생산방식인 경우는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산방식이란 기존의 생산방식에 기초하여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방식의 가상적인 조합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앞으로 어떠한 생산방식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인가는 어느 생산방식이 포드주의와 ME혁명을 효율적으로 결합하느냐에 달려 있다.

(25) 물론 최근에 소규모의 자본들도 대자본이 진출하지 못하는 틈새시장을 바탕으로 다국적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은 틈새시장에서 벗어나 대자본과 본격적으로 경쟁(교위험의 기술투자등)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집적·집중에 의한 대자본화는 필수불가결하다. 따라서 소자본의 경우는 일단 이 정의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26) 맑스가 『자본론』에서 자본간 경쟁을 다루기 이전에 가장 먼저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전면적 발전을 가져온 기계제의 성립에 주목한 것은 자본간 경쟁의 근저에 있는 생산방식에 주목한 것이었다. 또한 자본의 본질을 다루고 있는 제1권에서 기계제에서 자본의 경쟁이 신기술의 도입을 통한 특별인여가치의 획득에 있다는 것을 서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본 연구가 포드주의의 대량생산방식에서 자본 규모에 주목하는 것은, 자본규모의 확대가 특별인여가치를 낳는 원천이 되고, 이것이 자본간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등장하였다는 것에 그 이유가 있다.

(27) 資本循環의 한 국면만을 배어내고, 그것을 각각 商品資本의 國際化, 貨幣資本의 國際化, 生産資本의 國際化라고 정의하는 것도 資本國際化論이 갖고 있는 문제이다. 다국적기업이 생산판매 활동을 하는 것은 자본국제화론이 주장하는 마와 같이 생산자본의 국제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3가지 국제화가 同時에 일어나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은 資本의 價値增殖過程의 각 국면에서 分業이 深化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분업관계의 내용이다. 다국적기업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생산자본의 국제화라고 할 경우, 그것이 가치증식과정의 이미 국면의 분업관계를 綜合하고 있음을 간과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다국적자본이 포드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ME관련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방식의 변화를 추구하여 생겼다는 것은, 多國籍資本의 生産方式이 갖는 矛盾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포드주의의 勞資關係는 표준화된 작업으로 동질성을 갖는 다수의 노동자를 한 공장에 집결시켜 생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노동조합 발전의 기초를 확대하였다. 노동조합이 자본의 경영권을 인정한 대가로 자본은 매년 노사협상을 통해 임금을 상승시키는 經濟主義的 勞資關係가 형성되었다. 나아가 작업에 대한 자본의 자의적 개입을 막기 위해 작업의 변화는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하였고, 임금도 작업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를 갖고 있었다. 노동자, 중간관리자, 경영자의 역할이 엄밀하게 구분되어 있었고 서로의 영역에 대해 간여하지 않는 노자관계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아울러 국가도 노자간의 자율적인 협상에 간여하지 않고, 사회복지제도등을 통해 생산영역에서 노자가 담당할 수 없는 것을 보완해 주는 엄격한 역할 분담에 기초하여 정책을 구사하였다.

그러나 포드주의적 생산방식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정체되면서 한계에 부딪힌다. 노동생산성이 정체된 근본적인 이유는 포드주의 자체에 있다. 규모의 경제성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요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 없어 생산설비의 낭비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 노자간에 엄격한 분업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생산공정의 낭비를 개선할 수 있는 체제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포드주의에 ME관련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도 포드주의가 갖고 있는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는 것은 아니었다. 生産의 柔軟性을 높인다는 것은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생산방식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이를 위해서는 포드주의적 노자관계가 변화하여야 한다.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경우 기계만으로 생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를 이 기계체계에 맞도록 직무를 전환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이것은 기존의 노자관계의 변화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²⁸⁾ 따라서 多國籍資本의 生産方式 형성과정은 이러한 階級關係의 變化를 가져오는 矛盾的인 過程인 것이다.⁽²⁹⁾

둘째, 국경을 뛰어넘어 전세계를 대상으로 價値增殖活動을 하는 資本의 한 形態로 다국적자본을 정의하는 것은 자본의 축적 활동이 국가의 틀을 뛰어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관계는 그 자체가 국가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음과 동시에 자본은 이윤이 발생하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도 활동을 하는 세계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다국적자본의 형성은 자본의 세계성을 전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관계의 前提에

(28) 물론 이러한 노자관계의 마당에 있는 국가의 기능도 변화하여야 한다.

(29) 이러한 의미에서 포드주의는 단순한 생산방식일 뿐만 아니라 社會體制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포드주의의 위기를 분석할 때 이러한 社會體制의 危機를 고려하여야 한다.

일정한 영향을 주고 긴장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국가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하여야만 다국적자본의 의의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정의는, 다국적자본의 활동에 주목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 및 기능변화를 간과함으로써 선불리 世界經濟의 統合化를 주장하는 논의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정정하는 의의를 갖는 것이다.⁽³⁰⁾

3.2. 多國籍資本의 競爭形態

다국적자본의 성립은 자본운동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價値增殖活動의 모든 국면이 전세계적 차원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가장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계적 차원에서 가치증식 활동을 하는 자본들의 생산과 경쟁은 자본주의의 구조변화 중 가장 심각한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다.⁽³¹⁾

다국적자본이 전개하고 있는 경쟁의 양상은 어떠한가. 이를 위해 다국적자본의 구체적 모습인 다국적기업의 축적전략을 간략히 정리해 보자.

1980년대 들어 세계경제의 중심적 조직자라 할 수 있는 다국적기업의 전략은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중요한 변화로 들 수 있는 것이 다국적은행의 발전과 ME혁명의 확산에 따른 産業의 情報化이다. 또한 다국적기업의 국제적 전략에서 디번들링(debundling)과 域內調達(on-shore)의 傾向이 두드러지고 있다. 디번들링이란 과거에는 자본·경영·기술 등이 하나의 패키지가 되어 해외로 진출했던 양상에서 벗어나 이들 요소들을 각각 분리하여 외국에 진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향에서는 새로운 직접투자보다는 라이선싱契約·經營契約·下請 및 注文者商標付着(OEM)생산이 중요한 것으로 부각되었다.

역내조달의 경향이 부각되는 것은 일본식 생산방식이 중요한 경영방식으로 되었다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일본형 생산방식에서 특히 在庫管理의 革新은 역내조달의 경향을 증대시켰다. 원자재의 적기공급을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재고관리의 혁신에서는 완제품생산업체와 부품업체간의 유기적인 관련이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완제품업체와 지리적으로 근거리에서 부품업체가 배치되고, 완제품업체와 부품업체 간 정보의 흐름을

(30) 자본간 경쟁에서 생산의 효율성 경쟁은 국가의 기능도 변화하게 한다. 예컨대 포드주의에서 자본의 사회복지기급의 지출은 경쟁이 일국내로 제한된다면 자본간 경쟁조건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다국적자본간 경쟁이 국경의 틀을 뛰어 넘을 경우 이것은 자본간 경쟁 조건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자본은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국적자본간 경쟁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 중에 하나이다.

(31) 이 가운데에서도 미인 다국적자본들간의 경쟁은 새로운 생산방식의 11대방법을 둘러싼 경쟁은 가장 첨예적으로 보여준다.

적절히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본식 생산방식이 국제적인 경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유럽의 다국적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획득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에 이른다. 이로 인해 1970년대까지의 미국의 다국적기업이 중심이 되어 추진한 공정분할에 기초한 세계적인 분업구조(부품의 域內調達: off-shore)를 추구하는 전략에 변화를 가져왔다. 즉, 완성업체와 부품업체의 유기적 연관을 재고할 수 있는 地域據點完結型 분업구조를 형성하고 이들을 네트워크로 통합하는 據點統合型 전략으로 다국적기업의 국제전략이 전환되고 있다.

그러면 다국적기업의 이러한 전략변화가 세계적 차원의 생산체제 및 자본축적에서 갖는 의의는 무엇인가? 이것은 다국적기업이 가치생산의 모든 부문들을 전세계적 차원에 배치하는 국제적 통합생산이 전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이러한 국제적 통합생산은 각 지역별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現地化와 함께 전개된다. 다국적기업이 현지화를 고려하면서 통합생산을 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요인 때문이다. 그 하나는 각국이 1974~75년 공황을 거치면서 자본의 再構造化와 對外進出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문제 등 노동자계급의 반발을 고려해 다국적기업에 대해 일정한 조건을 부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각국이 국산품의 현지조달의무, 제품의 수출의무 등 각종 조건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들을 받아들이면서 다국적기업의 원활한 축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다국적기업이 각 지역별로 현지화를 고려하면서 통합생산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각 지역별 거점완결형 통합생산을 추진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가장 이윤이 많이 나는 지역으로 생산 또는 공급의 일부분을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에 기초하고 있는데, 그 이동은 R&D, 조달, 생산, 회계, 자금운용, 인력훈련, 기업전략기획, 법무 등 기업활동의 모든 측면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UNCTAD(1993, pp. 121~125)].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價值生産의 각 부문들의 連繫를 分離하고 調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다국적기업은 이러한 전략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생산요소를 분리하고 다시 결합시킬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분리된 소유권하에 있는 企業의 價值連繫를 더욱더 통합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ME력명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다국적기업은 최근 전략에서 자본재휴뿐만 아니라 비지분재휴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를 통해 자신의 지배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³²⁾

(32) 이러한 전략의 추진에서 주요한 것이 정보네트워크의 관리를 통해 각 지역별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기업전략의 통합이다. 이 결과 다국적기업은 종종 지역적 또는 하위지역적으로 집중된 네트워크를 통해 전세계적 시장에 공급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일본의 자동차 다국적기업이다. UNCTC(1992)는 다국적기업의 이러한 전략을 地域中樞網戰略(regional core network strategy)이라고 이름짓고 1980년대 다국적기업의 주요한 전략으로 위치짓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多國籍企業의 戰略變化를 가져온 多國籍資本의 競爭의 성격은 무엇인가.

우선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ME 기술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경쟁의 관건으로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는 많은 資本投下가 요구된다. 다국적자본의 R&D투자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은 이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모든 산업 부문에서 ME 기술을 확보하고 그것을 생산에 적용하는 것이 자본간 경쟁에서 우위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 되었다. 따라서 전자·컴퓨터 산업과 전혀 관련이 없던 자본이 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화를 추진하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戰略的 提携가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위한 자본 투하가 거대해지면서 그에 따른 危險負擔도 커졌다. 새로운 기술을 다른 자본보다 먼저 개발할 경우 그 자본은 막대한 특별잉여가치를 획득할 수 있지만, 실패할 경우 도산의 위험까지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들은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 서로 손을 잡거나 국가가 위험을 줄여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셋째,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것의 물질적인 한계, 즉 수요 변화에 따른 대량설비투자의 낭비성으로 인해 生産의 柔軟化가 중요하게 되었다. 이것은 ME 관련 기술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요컨대, ME 관련 기술의 효율적 활용 여부가 자본의 특별잉여가치 추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다. 이것은 일반적인 과학기술보다도 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즉 生産技術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다국적자본은 新技術을 채택함과 동시에 그것의 오류를 수시로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企業內 組織의 형성에 주력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신기술 개발 과정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향이 커지는 것도 바로 여기에 원인이 있다.

넷째, 生産의 柔軟化를 추진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雇傭의 柔軟性을 높이는 것, 즉 고용과 해고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기존의 조직을 변화시키고, 노자 관행을 변화시키는 것이므로 노동자 계급의 반발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 생산라인의 문제를 수시로 개선하기 위한 誘引體系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생산기술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이다. 이것이 축적되면 그 기업의 독특한 경쟁우위적 요소가 된다. 결국 생산의 유연화를 위해 자본은 노동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誘引體系를 만드는 것이 자본에게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쟁에서 특히 일본식 생산방식을 기초로 한 일본 자본이 우위를 보이고 있었다. 일본 자본이 세계자본주의에서 두각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은, 미국 자본의 일방적 우위 구

조가 깨지고 자본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것은 위와 같은 경쟁 양상을 매우 치열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한 기업이 모든 생산 영역에서 우위를 갖는 구조가 붕괴되고, 여러 기업들이 각각 企業特殊的 競爭優位要素를 갖게 됨으로 인해 戰略的 提携도 활발하게 전개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1980년대 다국적기업의 전략 변화는 바로 이러한 다국적자본간 경쟁 심화를 반영한 다국적자본의 再構造化(Restructuring) 전략인 것이다. 다국적자본의 재구조화는 기업조직, 노사관계의 변화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능까지도 변화시키고 있다.

4. 多國籍資本과 資本主義國家의 變化

4.1. 資本과 國家：一般理論

다국적자본과 국가의 관계를 분석하기 전에 우선 살펴보아야 할 것은 자본과 국가의 일반적 관계이다. 그리고 이에 더해 독점자본과 국가의 관계도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다국적자본이 자본일반의 관계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독점자본의 발전된 형태이기 때문이다.

資本主義生産樣式에서 자본에게 국가는 必須不可缺한 존재이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의 핵심적인 운동주체인 자본은 그 개념 자체에 資本主義國家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다. 이것은 맑스가 『資本論』에서 資本概念을 도출하는 과정을 보면 잘 드러난다. 맑스는 流通過程에서 資本의 一般的 公式의 矛盾을 제시⁽³³⁾하고, 價値를 創造하는 특수한 商品인 勞動力을 발견함으로써 이 모순을 해결한다. 二重의 의미에서 자유로운 노동력의 존재가 자본의 일반적 공식의 모순을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것이다. 이중의 의미에서 자유로운 노동력이 공급되기 위한 前提條件이 바로 公權力, 物理的인 暴力인 國家의 존재이다. 자본관계의 전제인 자유의사에 따른 交換關係를 파괴하는 것을 規制하는 國家⁽³⁴⁾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폭력이 공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자본의 국가는 不偏不黨한 심판자로서의 外樣이 필요한 것이다.⁽³⁵⁾ 자본 개념 자체가 노동력이라는 특수한 상품의 존재를 전제

(33) 『자본론』 제1권 제1장에서 제5장까지의 분석이 이에 해당한다. 자본의 일반적 공식이란 자본의 유통과정에서는 이윤의 원천이 되는 잉여가치가 생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윤이 발생하는 것의 모순을 말한다. 맑스는 이 자본의 일반적 공식의 모순을 가치를 생산하는 자본주의 고유의 상품인 노동력 가치를 발견함으로써 해결한다.

(34) 부르주아혁명만 마모 이러한 자본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35) 이러한 측면에서 자본이 자본으로서 운동하기 위해서 자본의 국가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Holloway and Picciotto(eds.)(1978)에서 잘 보여지고 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력 상품의 재생산에 필요한 전제조건인 商品交換關係의 유지 및 그를 위한 所有權의 확보 등은 자본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으로서 자본관계에 전제되고 있다. 그리고 자본관계에는 잠재적 자본인 화폐의 존재 및 화폐관계가 전제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貨幣의 適切한 供給 및 價値의 維持도 또한 자본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이 된다.⁽³⁶⁾ 결국 자본주의 생산양식에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자본관계에서 전제되어 있는 勞動力의 再生産과 勞資關係의 逸脫을 防止하는 것과 화폐의 적절한 유지와 화폐가치의 안정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나아가 자본주의 국가의 역할은 자본운동이 본격적으로 세계적 차원에서 전개됨에 따라 자국 자본의 세계적 활동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³⁷⁾

자본주의가 20세기 초 독점자본주의로 이행하고 포드주의가 지배적인 생산양식으로 성립함에 따라 앞에서 본 자본주의 국가의 일반적인 역할은 독점자본주의에 규정되어 보다 구체적이고 새로운 모습을 띠게 된다.

우선 勞資關係 및 勞動力의 再生産과 관련된 자본주의 국가의 역할 변화를 보도록 하자. 포드주의의 호순환 과정에서 노동력의 원활한 재생산을 위한 국가의 역할은 더욱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良質의 勞動力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국가는 大衆教育機關의 整備, 醫療保險 등 社會保障制度의 확립에 더욱 주력하게 되었다. 교육, 의료 등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임금만 아니었지만 간접적으로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시켜 장기적으로 노동력 공급을 확대하는 효과를 갖는 것이다. 이것은 個別資本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큰 것이기에 노동자에게 금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國家財政을 통해 이루어졌다. 노동운동은 이러한 사회보장등 間接賃金을 자본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公平無私한 제 3자로 보이는 국가에게 요구하는 형태를 띠었고, 국가는 이를 자본가와 노동자의 寄與金을 통해 조달 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독점자본주의에서 국가는 자본이 부담하여야 할 간접임금을 부담함으로써 개별 자본의 비용을 줄이고 축적을 원활하게 하는 社會的 總資本⁽³⁸⁾으로서의 기능을 본격적으로 수행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독점자본주의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정립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와 같이 경쟁자본주의와는 달리 독점자본주의에서는 특히

(36) 자본관계 그 자체에서 즉 특수한 상품인 노동력의 창출과 화폐의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의 존재가 필연적이라는 것은 de Brunhoff(1978)를 참조하라. 특히 화폐의 안정적인 공급은 金本位制에서 管理通貨制로 移行함에 따라 더욱 중요한 국가의 기능이 된다.

(37) 2번에 걸친 세계대전은 바로 이러한 국가들의 출동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38) 사회적 총자본이란 국가의 일반적인 성격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국가는 자본의 이해를 반영하지 않더라도 개별자본의 이해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피지배자본과 여러 자본본파의 이해를 조정하여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즉, 국가가 단순한 자본의 대리인이 아니라 나쁜 주체적인 위동은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개념이다.

원활한 노동력 공급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 확대되었던 것이다.

또한 자본주의적 景氣循環過程에서 국가의 역할도 확대된다. 대공황을 경험한 이후 過剩生産된 商品의 未實現은 노동자계급의 실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 즉, 國家財政의 擴大를 통해 有效需要의 부족을 해결함으로써 불황을 완화하고,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에는 緊縮財政을 통해 過熱景氣를 진정시키는 국가의 역할이 부각되었던 것이다. 사실 사회복지지출의 증가도 미실현 상품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다.

독점자본주의의 성립에 따른 金本位制에서 管理通貨制로의 移行은 貨幣의 適切한 供給과 價値維持에 관련된 자본주의 국가의 역할을 더욱 중요하게 하였다. 금본위제에서 국제적 상품의 이동은 궁극적으로 금의 이동을 통해 決濟되었고 그 국가의 通貨價値는 그 국가가 보유한 金保有量에 의해 결정되었다. 또한 국가는 통화를 금과 兌換하여야 하는 의무로 인해 통화발행은 엄격히 규제되었고 통화가치의 안정성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상품의 국제적 거래가 확대되고 금보유와 그 이동의 불균형이 확대됨에 따라 더 이상 금본위제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화폐의 공급은 각 국가에 의해 관리되는 管理通貨制로 이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 통화가치의 안정은 自國商品의 對外去來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인으로 대두되었다. 1930년대 貿易戰爭이 각 통화블럭간의 대외거래를 축소시키고 그것이 결국 제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볼 때, 國際通貨價値의 安定은 자본주의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前提가 되는 것이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IMF체제가 성립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IMF체제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金1온스=35달러라는 대외적 태환을 보장하고, 달러를 기준적인 국제통화로 만들었던 것이다. 이 결과 각국은 이에 연동하여 통화가치의 변동에 따라 平價切上이나 平價切下를 의무받게 되었다. 통화가치의 변동은 기본적으로 각국의 대외거래를 반영하는 국제수지의 불균형에서 유래하는 것이지만, 통화발행의 과다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등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 자국 통화가치가 불안할 경우 자본의 대외 활동은 제약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국은 통화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화폐가치의 유지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독점자본주의에서는 그 성립과정에서도 잘 보이듯이 자본 규모의 확대는 주식회사제도 등의 信用機構의 정립을 토대로 하고 있다. 자본에게 이러한 신용기구의 이용은 경쟁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자본이 자본주의적 신용기구의 連鎖에 포섭되어 있다. 이 결과 어느 한 자본이 도산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信用의 連

鎖를 통해 안정적인 다른 자본들도 영향을 받게 된다.⁽³⁹⁾ 이에 대응하여 자본주의 국가는 資本主義的 信用機構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신용의 연쇄가 다른 부문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독점자본주의하에서 자본수출의 증가와 이에 따른 자본의 세계적 규모에서의 축적활동의 증가는 자국 자본의 대외적 활동의 장애를 제거하고 자본축적을 원활하게 하는 국가의 역할을 더욱 부각시킴과 동시에 資本의 世界性과 國民性간의 矛盾을 具體化하였다. 각국이 자국 자본의 대외적 활동의 장애를 제거하는 과정은 각국간 대립을 필연적인 것으로 만들었고, 이것이 결국 通商摩擦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통상마찰은 협에 근거한 협상을 통해 해결되는 과정을 밟지만, 단순한 국가간의 대립이라는 형태만을 띠지 않는다. 자본의 대외적 활동의 증가는 노동력의 안정적인 공급조건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의 대내적인 해결이라는 새로운 課題를 국가에게 부여하였다. 우리가 앞에서 1970년대 미국자본이 본격적으로 다국적화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雇傭輸出論이 제기되면서 다국적기업 비판론이 제기되었고, 이를 調整하기 위해 국가의 政策轉換이 일어남을 보았다. 이러한 현상은 바로 資本의 世界性과 國民性간의 矛盾이 對內的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국가는 이러한 모순을 조정하는 구체적이고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는 것을 의미한다.

4.2. 多國籍資本과 資本主義國家

그러면 다국적자본과 국가의 관계가 독점자본과의 관계에 비추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이 관계도 자본주의 국가의 기본적 기능인 勞動力再生産條件의 확보, 貨幣價値의 安定, 國際通貨價値의 安定, 자본의 對外的 活動의 障礙除去라는 측면에서 정리해 보자.

우선 勞動力再生産條件의 確保와 관련된 국가의 역할을 보면, 雇傭의 安定이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독점자본주의에서 포드주의가 정립된 이후 고용 문제는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떨어졌다. 다국적자본화는 더욱 저렴한 노동력 및 새로운 시장을 찾아 자본이 움직이는 것으로서 대내적으로는 고용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이 된다. 1970년대 미국의 노동조합이 고용수출론을 제기하면서 다국적 기업을 본격적으로 비판하는 것도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고용 문제가 국가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면서, 자국의 衰退産業을 보호하기 위한 保護

(39) 1930년대의 大恐慌은 이러한 信用連鎖를 통해 한 부문에서의 공황이 다른 부문으로 계속 파급되어지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자본의 대외적 활동이 확산됨에 따라 이러한 연쇄반응은 일국적으로 제한되지 않고 전세계적으로 파급된다.

主義가 대두되었다. 최최산업의 자본은 고용수출론을 활용하여 산업보호가 고용의 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자유무역의 한계와 보호무역의 필요성을 강조하기에 이른다. 이 결과 社會的 總資本으로는 국가는 국가내의 被支配階級과 각 資本分派間의 이해 대립을 반영하여 점차 보호주의적 경향을 갖게 되었다.

한편 고용문제가 부각되면서 외국의 다국적자본에 대한 국가의 대응양식도 변화하기 시작한다. 외국 다국적자본의 자국 진출에 대한 국가의 초기 입장은, 경제적 침투라는 인식을 반영하여 각종 규제를 설정하여 이들의 활동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점차 다국적자본의 유치가 자국의 고용문제의 해결, 산업생산의 활성화를 가져온다고 인식하면서, 1980년대 들어서부터는 각국이 이러한 다국적자본의 유치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다국적자본을 유치하면서도 자국의 고용수준의 개선 및 다른 산업부문과의 연관 제고 등을 고려하여 국산부품 사용의무, 수출의무 등이 조건으로 附加되고 있다.

둘째, 勞資關係에 대한 국가의 기능변화를 보자. 포드주의에서는 간접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보장 지출등을 증가시키는 개입주의적 국가가 출현하였다. 그러나 포드주의가 한계에 다치면서, 특히 노동생산성 상승률이 하락하여 임금상승이 자본에게 큰 부담이 되면서, 사회보장지출 등 복지정책은 노동의 공급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어 축소되었다. 한편 노동조합의 존재도 賃金の 下方硬直性을 높이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노동조합에 대한 국가의 공격적인 정책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1970년대 후반부터 등장하는 新保守主義는 이러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⁴⁰⁾ 포드주의적 노자관계는 자본과 노동력간 생산영역에서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반면, 생산의 결과인 분배 문제를 중심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런데 국가가 노동자에 대해 공격적인 정책을 구사한다는 것은 국가가 노자관계 그 자체에 대해 개입하기 시작하였고, 포드주의적 노자관계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노자관계에 대한 직접적 개입과 함께 資本蓄積 활동 그 자체에 國家가 介入하기 시작하였고, 이것도 국가의 중요한 기능이 되었다. 이는 포드주의에서도 그 가능성은 존재했지만 ME혁명의 진전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다. 생산에 이러한 ME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자본투하, 특히 R&D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R&D투자는 資本의 回遊期間이 길고 실패할 가능성도 높은 위험성이 큰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개별 자본이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 결과 국가는 국가재정을 활용하여 자본의 이러한

(40) 신보수주의가 현실적인 정책 실험을 하는 것은 1980년대이다. 그러나 1974~75년의 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각국이 사용했던 정책적 실험은 신보수주의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보수주의가 대두한 시점은 1970년대 후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R&D투자에 대해 위협을 감소시키고 자본간 연합의 장을 만들어 공동 활용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도 하는 것이다. 특히 미일 다국적자본의 경쟁에서 일본 자본이 우위를 점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이러한 국가의 지원에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국가지원은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⁴¹⁾

넷째, 貨幣價値를 안정시키기 위한 통화의 공급 및 國際通貨價値의 안정과 관련한 국가의 기능변화를 보자. 1970년대부터 인플레이션이 만성화됨에 따라 화폐가치의 안정이라는 국가의 목표는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변동환율제로의 이행은 일국의 불안정이 곧바로 다른 나라로 파급되게 만들어, 화폐가치의 안정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 하나가 되었다. 특히 다국적자본의 활동이 본격화되고 세계적인 자본활동이 전개됨에 따라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적절한 국제통화의 공급과 안정은 필수불가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변동환율제는 이러한 국제통화의 안정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고, 국제통화가치의 불안정은 다국적자본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었다. 이 결과 국제통화가치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주요 국가는 정책협조를 추진하게 되었다. 그리고 1970년대부터 유로시장의 발전과 단기투기성 자금의 이동으로 인해 국제신용기구의 불안정성도 증폭되었다. 이러한 국제적 신용기구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도 국가의 새로운 기능이 되었다.

다섯째, 資本活動의 對外的 障礙除去라는 국가의 기능은 자본의 세계적 활동이 증가되고 보호주의가 대두되면서 더욱 구체적인 모습을 띠게 된다. 이러한 국가의 활동은 고용의 확보가 중심적인 과제로 등장한 것과 모순되는 양상을 띤다. 고용의 확보를 위해 국가는 외국 다국적자본의 유치에 적극적인 태도로 전환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산품사용의무, 수출의무 등 다양한 조건을 덧붙인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조건은 다국적자본의 축적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국적자본의 모국은 자국의 다국적자본이 진출한 국가에서 설정한 제한을 완화·제거하는 것이 자본의 축적활동을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다고 인식하였다. 다른 한편 다른 국가도 타국의 다국적자본에 대해 동일한 정책을 채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은 상호간에 이러한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대립하는 것이다. 1970년대 이후 통상마찰이 더욱 심각한 양상을 띠고 각국간에 相互主義가 대두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國家의 矛盾的인 機能이 具體化되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4.3. 多國籍資本의 競爭과 新保守主義 — 經濟摩擦의 含義

포드주의 생산방식에 ME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전세계를 대상으로

(41) 국가의 개별자본에 대한 지원이 가장 미약하다고 알려지는 미국에서도 1980년 1월 성립한 크라이슬러지원법을 계기로 국가의 지원은 보편화되었다.

가치증식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자계급 및 노동조합의 힘이다. 職務를 統合하고 職務轉換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노동자계급이 포드주의하에서 얻어냈던 노동자권리의 상실을 의미하고 勞動過程에 대한 자본가의 統制가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⁴²⁾ 따라서 이러한 전환은 勞動과 資本간의 激烈한 對立을 內包하고 있는 것이다. 이 치열한 노자대립에서 국가는 포드주의에서 보여주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띠기 시작한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포드주의적 축적방식에서 국가는 노자간 직접적 대립 영역인 생산영역에는 개입하지 않고, 자율적인 노자관계를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요컨대 생산영역에는 “관계자의 출입금지”로서 간여하지 않고 생산의 결과물의 분배가 가져오는 불균형을 간접적으로 해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었다.

그러나 다국적자본의 활동이 확대되어감에 따라 이러한 독점자본의 국가에는 일정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의 구체적인 모습은 신보수주의의 대두인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다국적자본의 경쟁과 신보수주의의 등장이 어떠한 관련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자본간 경쟁에서 우월한 생산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자본이 나타날 경우, 각 자본들에게는 이러한 생산방식을 빠르게 채택하는 것이 사활이 걸린 문제로 대두된다.⁽⁴³⁾ 일본 자본과의 경쟁에서 취약한 모습을 보인 미국 자본에게는 이러한 일본식 생산방식을 적극적으로 흡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의 다국적자본은 國家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 그 방법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경제마찰을 통해 미일자본간 경쟁을 일시적으로 완화하여 제구조화를 위한 시간을 벌고, 일본식 생산방식을 채택하는 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노동자계급의 반발을 완화하는 것이었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1970년대 미국 다국적자본이 추구하였던 전략은 포드주의적 생산방식을 세계적인 차원으로 확대·적용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략의 추진은 국내적으로 실업문제를 발생시켰다. 이 결과 1970년대부터 실업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한편 미일 자본간 경쟁에서 일본 자본의 우위와 미국 자본의 약화도 역시 실업으로 나타났다. 일본 자본과의 경쟁에서 미국 자본은 생산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 자본은 실업의 원인이 일본 자본의 불공정한 경쟁에 원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규제해 줄 것을 국가에게 요구하였다. 노동자계급에게도 실업은 매우 중요한 위협이다. 따라서 노동자계급도 역시 일본 자본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게 되었다.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42) 이것은 ‘구상과 실행의 통합’과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성격을 갖는다. 즉, 새로운 생산방식이 갖는 모순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43) 특별잉여가치를 취득하기 위한 자본간 경쟁은 자본에게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경쟁하는 자본이 새로운 생산방식을 채용할 경우, 모든 자본은 이러한 방식을 흡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자본들에게 새로운 생산방식이 확산되면 특별잉여가치는 소멸된다.

의 일치된 요구를 바탕으로 미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협상을 하였고, 일본 자본과 미국 자본의 사활이 걸린 경쟁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경제마찰의 본질이다.

다른 한편 국가는 실업문제가 갖는 심각성을 고려하여 미국 자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늘리게 된다. 1980년 크라이슬러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은 이러한 측면을 잘 보여준다. 연방정부는 자본에 대해, 지원을 하면서 자본의 재건이 노동자계급에게도 중요한 것이며 이를 위해 노동자계급이 자본에 대해 양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했다.⁽⁴⁴⁾

경제마찰에 의해 경쟁을 일시적으로 완화한 자본은, 이 기간 동안 일본식 생산방식을 적용하여 재구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본은 재구조화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노동자계급에게 요구한다. 그것은 일본식 생산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勞動協約의 變更이다. 職務의 統合과 作業再配置를 용이하게 하여 팀작업 방식을 도입하고, 성과급 임금제, 임금의 삭감 등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그 동안 노동자계급이 얻어낸 성과들을 반납하고 資本의 統制에 包攝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노동자계급의 반발을 낳았다. 자본은 失業을 무기로 노동자계급을 위협하였다. 새로운 노동협약을 받아들이면 생산을 계속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노동자계급을 위협함으로써 노동자계급의 양보를 얻어냈던 것이다. 실업문제는 각 지역단위에서도 노동자계급의 양보를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지역정부의 차원에서 볼 때, 가동되던 공장이 폐쇄되고 실업이 증대되는 것은 그 지역사회의 쇠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결과 포드주의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파업도 지역사회 지지력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노동자의 양보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다른 한편 자본이 재구조화를 위해 공장 입지를 구할 경우, 각 지역정부는 그 공정을 위해 사회간접자본, 세제 등 각종 지원을 약속하고 공장의 유치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것은 자본의 활동영역을 국내적으로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나아가 자본은 ‘우리’ 자본이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노동자들의 실업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논리를 기반으로 국가에 대해 각종 지원을 요구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반트러스트법’의 완화, 과학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등이다. 이것은 ME혁명으로 인해 과학기술을 생산에 적극적으로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기술을 생산에 적용하여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자본간 경쟁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44) 미인자동차마찰(1980~81), 미인반도체마찰(1985~86), 미인구조조정협약(1989~90) 등의 경제마찰에서 국가와 자본, 나아가 노적관계의 변이에 대해서는 이용우(1995)를 참조.

필요한 자금도 커지고 위험성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자본은 국가에 대해 이러한 자금과 위험을 분담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본의 요구는, 일본자본의 우위성을 뒷받침하는 것 중 하나가 국가의 자본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더욱 강력해진다. 자본은 산업의 경쟁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정책을 요구하고 이 논리는 점차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것이다.

요컨대 1980년대 미일경제마찰이 심화되면서 전개되는 미국 자본의 재구조화는 자본의 활동공간 확대와 노동자계급의 세력 약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경제마찰의 과정에서 미국 자본의 경쟁력을 최우선으로 하는 政府・政策의 출현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1980년대 레이건의 등장으로부터 시작된 미국의 新保守主義⁽⁴⁵⁾는 앞에서 보았듯이 1974~75년의 불황을 타개하는 과정에서 미국 자본이 일본 자본과의 경쟁에서 열세를 보이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신보수주의의 핵심은 자본의 활동에 대한 전적인 지원과 노동자계급에 대한 양보를 요구한 것이었다.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자본의 再構造를 위한 사회적 기반의 정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포드주의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 1970년대의 위기는 케인즈주의적 경제정책의 이념을 포기하게 하였다. 케인즈주의는 국가가 적극적인 재정을 통해 경기에 대응하고 복지정책을 통해 노동자계급의 반발을 흡수하는 것을 기본적인 경제정책으로 삼는다. 국가는 자본과 노동자의 생산활동에 대해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거시경제정책을 통해, 사적 자본들의 운동결과 나타나는 市場의 失敗와 자본주의적 경기변동에 대처하는 것이 기본적인 임무였다. 그러나 1970년대 불황으로 국가는 勞資關係 자체에 개입하고 그것을 변화시켜야 했다.

국가의 경제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의 방향은 포드주의적 노자관계에 집중되었다. 포드주의의 노자관계에서 특징적인 것은, 교섭이 주로 분배 측면에 국한되었고 이것이 계속적인 임금상승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따라서 포드주의의 위기였던 1970년대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賃金の 下方硬直性을 없애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 결과 포드주의적 복지정책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실업보험등 福祉豫算의 削減이 단행된 것이다. 실업연금이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실업이 되어도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 노동시장이 경직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따라서 실업보험 등 복지예산을 삭감하면 실업자는 생계를 위해 노동공급을 늘리고 낮은 價格(賃金)으로도

(45)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 정권, 영국의 대처 정권, 일본의 나카소네 정권 등 국제적으로 신보수주의가 등장한 배경을 1970년대 불황회피 전략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는 대표적인 연구는 川上忠雄・増田詩男 編(1989)과 Thompson(1990) 등이다.

고용되길 원할 것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경직성도 완화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국가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양보를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특히 산업의 불황과 도산의 위기가 가중되면서 국가는 사적 기업의 경영에 직접 간여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 크라이슬러에 대해 연방자금을 지원하면서 국가는 경영에 직접 간여하였고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임금 삭감 등 양보를 요구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국가는 자본의 활동에 대한 규제들을 완화함으로써 자본의 활동공간을 넓혀주는 정책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자본의 활동영역을 규제하고 있던 ‘반트리스트법’ 등을 점차 완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같이 國家가 私的 企業의 生産過程에 까지 개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국가의 생산과정에 대한 개입은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레이건 정권이 ‘강한 미국’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산업의 활력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펼 것이라고 하면서 등장한 것은 바로 이러한 민족주의적 감성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국가의 논리는 비일경제마찰의 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갈수록 강화되었다.⁽⁴⁶⁾ 또한 노동자계급도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는 실업의 위험을 배경으로 점차 자본에게 양보하는 것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⁴⁷⁾ 나아가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가가 자본을 지원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라는 논리가 확산되어 나갔던 것이다. 특히 경제마찰을 통해 특정국가가 그 대상으로 되면서 그 논리는 더욱 힘을 얻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에서 신보수주의가 대두되고 강화되어 나가는 과정은, 위기에 처한 미국의 다국적자본이 일본식 생산방식을 도입하고 자본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며 규제완화를 이끌어냄으로써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과정이었다. 따라서 미국에서 신보수주의의 확산 과정은 다국적자본의 논리가 전사회로 확산되는 과정이었다.

5. 結論 — 글로벌리제이션의 含義

포드주의의 위기에 대응하여 다국적자본이 형성되고, 그 활동이 전세계적 영역으로 확대되어 가면서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론이 쇠퇴하고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자본활동의 자율성을 주장하는 신보수주의가 대두하였다.

신보수주의의 대두가 다국적자본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것은 최근 글로벌

(46) 전략산업론, 기술안전보장론은 민족주의적 감성에 호소하는 자본의 또 다른 논리이니

(47) 산업보현론 등 복지혜사이 시각되는 상황에서 실업의 위험은 노동자에게는 생존권이 담긴 것이 된다.

리제이션 논리 또는 국가경쟁력 논리가 사회를 지배하는 논리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제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세계경제에서 미국식 포드주의가 전세계로 이식되어 가는 과정은 한마디로 자본의 세계적인 활동을 위한 전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세계의 금을 압도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미국은 다량의 금살포를 통한 세계교역의 전제를 확립하려고 한 것이다. 이것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황금번영기(Golden Age)가 미국의 금살포, 다른 의미로는 무역수지 적자를 토대로 한 것이다. 그러나, 1960년대 들어 각국의 교역이 활성화됨에 따라 곧바로 위기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포드주의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체제는 일국적인 자본활동에 적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노자간의 자율적인 생산활동에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생산의 결과물의 분배에 대해 국가가 간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모순을 점진적으로 개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이러한 국가의 활동은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적 총자본으로서 국가의 의미에 걸맞는 것이었다. 이는 노자관계의 안정화를 위해 개별자본과 노동자계급이 일정액을 부담하는 체계로서 일국적인 자본간 경쟁에는 동일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간 경쟁관계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자본활동이 세계적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각국 자본이 부담하여야 할 짐은 상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 자본이 사회복지, 즉 자본관계의 안정화를 위해 부담하는 사회복지 부담금은 일본 자본의 그것과는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이런 경우 미국 자본은 세계적인 영역에서 일본 자본과 경쟁하는 데 큰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이의 제거가 새로운 과제로 등장한 것이다. 특히 일본식 포드주의가 ME혁명과 결합하면서 형성된 일본식 생산방식의 강점은, 노동자계급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였고, 이는 미국 자본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되었다. 미국 자본은 한편으로는 일본 자본에 대한 경계심을 통해 노동에게 양보를 강요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에게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장애를 주는 여러 가지 조치들의 삭감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다른 한편 노동자계급이 그 동안의 투쟁과정에서 얻었던 많은 성과의 포기를 강요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노자간 격렬한 대립의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그러니 이 과정에서 자본간 격렬한 경쟁의 결과로 나타난 실업의 위협은 노동자계급으로 하여금 양보를 거듭하도록 만들었고, 신보수주의는 이

(48) 이러한 신보수주의 형성과정에서 노자간 대립의 양상은 이용우(1995)를 참조.

(49) 경제마찰에서 응축지대로 드러나는 자본주의 국가의 활동에 관해서는 이용우(1995)를 참조.

(50) 다국적 자본의 활동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제 3세계도 최근 다국적 자본을 성장의 동인(the engine of growth)으로 파악하고 다국적 자본 유지 활동에 선구적으로 나선는 것도 글로벌리제이션 논리가 자본주의 세계의 통합논리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자본주의의 새로운 질서는 자본활동의 전제조건이 확립되자마자 자본의 본성 중 하나인 세계성을 개화시켜 다국적자본의 형성으로 이끌었고, 이러한 자본의 세계적 활동은 국내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의 자본편향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으로 귀결된 것이다.⁽⁴⁸⁾ 이것은 또한 자본주의 국가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외형적 不偏不黨性을 해치는 것이고 국가의 정책이 갖는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것으로서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내적 계급대립을 더욱 격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국적자본의 형성에 따른 자본주의 국가의 대내외적인 모순관계는 노자관계와 자본간 경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국가의 활동, 특히 경제마찰에 응축되어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⁴⁹⁾

이러한 의미에서 보던 글로벌리제이션은 자본의 다국적화에 따라 나타나는 국가의 자본편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자본의 경쟁력이라는 논리가 아닌 국가의 경쟁력, 즉 자본과 노동의 대립을 은폐한 ‘국가’ 자체의 경쟁력이라는 논리가 전세계의 주요한 경제통합 이념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⁵⁰⁾

國民大學校 經濟學科 講師

136-062 서울 성북구 돈암 2동 동소문한진 Apt. 202-304

전화 : (02) 925-3416

팩시 : (02) 925-3416

參 考 文 獻

이용우(1991): 『국가이론』, 서울, 한길사.

_____ (1995): “1980년대 미일경제마찰과 다국적자본,”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 학위논문.

安保哲夫 編(1994): 『日本の經營・生産システムとアメリカンシステムの國際移轉とハイブリッド化』, 京都, ミネルヴァ書房.

川上忠雄・増田壽男 編(1989): 『新保守主義の經濟社會政策—レーガン, サッチャー, 中曾根三政權の比較研究』, 法政大學比較經濟研究所, 東京, 法政大學出版局.

Aglietta, M. (1979): *A Theory of Capitalist Regulation—The US Experience*, London, NLB.

Andreff, W. (1987): *Les Multinationales*, Paris, éditions La Découverte; 藤本光夫 譯(1990). 『現代의多國籍企業』, 東京, 同文館.

- Bina, C., and B. Yaghmaian(1991): "Post-War Global Accumulation and the Transnationalization of Capital," *Capital and Class*, 43, Spring.
- BLPG(1977): "The Capitalist Labour Process," *Capital and Class*, 1, Brighton Labour Process Group.
- Bonefield, W., and J. Holloway (eds.)(1991): *Post-Fordism and Social Form: A Marxist Debate on the Post-Fordist State*, London, Macmillan.
- Boyer, R.(1986): *La Théorie de la Régulation: Une Analyse Critique*, Paris, éditions La Découverte: 정신동 역(1991), 『조절이론: 위기에 도전하는 경제학』, 서울, 학민사.
- Braverman, H.(1974): *Labor and Monopoly Capital: The degradation of Work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MRP: 이한주·강남훈 옮김(1987), 『노동과 독점 자본—20세기에서의 노동의 쇠퇴』, 서울, 까치.
- Buroway, M.(1979): *Manufacturing Consent: Changes in the Labour Process under Monopoly Capitalis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oriat, B.(1991): *Penser a l'Envers—Travail et Organisation dans l'Enterprise Japonaise*, Paris, Christian Bourgois Editeur: 花田昌宜·齊藤悦則 譯(1992), 『逆轉の思考—日本企業の労働と組織—』, 東京, 藤原書店.
- Cypher, J.M.(1972): "The Internationalization of Capital and the Transformation of Social Formations," *New Left Review*, 132.
- de Brunhoff, S.(1978): *The State, Capital and Economic Policy*, London, Pluto Press: 신현준 역(1992), 『국가와 자본』, 서울, 새길.
- de Vroey, M.(1984): "A Regulation Approach, Interpretation of Contemporary Crisis," *Capital and Class*, 23.
- Friedman, A.L.(1977): *Industry and Labour: Class Struggle at Work and Monopoly Capitalism*, London, MacMillan.
- Glyn, A., and B. Sutcliffe(1992): "Global but Leaderless? The New Capitalist Order," in R. Miliband, and L. Panitch (ed.) (1992), *Socialist Register*, London, The Merlin Press.
- Gramsci, A.(1926): "Americanism and Fordism," in Q. Hoare et. al. (eds. and trans.),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 Holloway, J.(1994): "Global Capital and the National State," *Capital and Class*, 52.
- Hymer, S.H.(1979):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A Radical Approach*,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Hymer, S.H., and B. Rowthorn(1970):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International Oligopoly: the Non-American Challenge," in C.P. Kindleberger (ed.), *The International Corporation*, Cambridge, MIT Press.
- Jenkins, R.(1987):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Uneven Development*, London, Methuen.
- _____ (1989a):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Industrial Transformation in Latin America*, New York, St. Martin Press.
- _____ (1989b): "Transnational Corporations, Competition and Monopoly," *Review of Ra-*

dical Political Economics, 21, 4.

Kennedy, M., and R. Florida(1993): *Beyond Mass Production: The Japanese System and Its Transfer to the U.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Mandel, E.(1967): “International Capitalism and ‘Super-Nationality’,” *The Socialist Register*.
 _____(1975): *Late Capitalism*, London, NRB.

McIntyre, R.(1991): “The Political Economy and Class Analytics of International Capital Flows: US Industrial Capital in the 1970s and 1980s,” *Capital and Class*, 43, Spring.

Michalet, C.(1976): *Le Capitalisme Mondial*,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藤本光夫 譯(1982), 『世界資本主義と多國籍企業』, 東京, 世界書院.

Murray, R.(1971): “The Internationalization of Capital and the Nation State,” *New Left Review*, 67.

Palloix, C.(1976): “The Labour Process: From Fordism To Neo-Fordism,” in *The Labour Process and Class Strategies*, London, CSE Pamphlet no.1.

Pitelis, C.(1991): “Beyond the Nation-State?: The Transnational Firm and the Nation-State,” *Capital and Class*, 43, Spring.

Radice, H.(ed.) (1975): *International Firms and Modern Imperialism*, London, Penguin.

Rowthorn, B.(1971): “Imperialism in the 1970s—Unity or Rivalry?,” *New Left Review*, 69.

Thompson, G.(1990):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New Right*, London, Pinter Publisher.

Thompson, P.(1983): *The Nature of Work: An Introduction to Debate on the Labour Process*, London, MacMillan.

UNCTC(1973): *Multinational Corporational in World Development*, New York, UN.

_____ (1992): *World Investment Report 1992: Transnational Corporations as Engines of Growth*, New York, UN.

Womack, J.P. et. al.(1990): *The Machine that Changed the World*, London, Macmillan: 현영석 역(1991), 『생산방식의 혁명』, 서울, 기아경제연구소.